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문헌적 고찰 및 향후 연구방향: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Privacy Paradox: A Literature Review and Future Direction

김 상 희 (Sanghee Kim)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

김 종 기 (Jongki Kim)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신저자

요 약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대해 논의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하여 다루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론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통합연구를 실시하였다. 통합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양도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연구였지만 점차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론이나 분석도구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시도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여전히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질적 수준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정하는 전통경제학에서 벗어나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하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연구가 확장되어 나간다면 프라이버시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키워드 : 프라이버시 역설, 프라이버시 태도, 프라이버시 행동, 행동경제학, 메타분석

I. 서 론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위치기반서비스, SNS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프라이버시 연구에 따르면, 웹사이트 사용자는 특정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가치에 비해 작은 보상에도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식이나 태도가 실제 행동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 행동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647).

동이론을 기반으로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태도와 행동의 양분화 현상에 대한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도 몇몇의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가 실제 프라이버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를 부정하고 프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대해 주장하는 관점을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연구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Belanger and Crossler, 2011; Lanier and Saini, 2008; Li, 2011, 2012; Smith et al., 2011). Smith et al.(2011)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다른 구성개념 간의 관계를 APCO(Antecedents → Privacy Concerns → Outcomes) 모델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 신뢰, 프라이버시 계산과 행동반응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행동반응을 실제 행동이 아니라 기술된 의도로 측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프라이버시 염려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지는 모르나 실제 행동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도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대해 논의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하여 다루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프라이버시 역설을 다루는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에 있어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하여 진행된 메타분석과는 차별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초점을 맞춘 메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는 그동안 다루어진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을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존재하며(Kokolakis, 2017), 프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 비해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이를 통합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성장을 위해 국내에서 다루어진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들을 수집하여 통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왔던 프라이버시 역설을 다루는 연구들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국내 연구가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분석방법에 의해 연구가 되어왔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통합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향후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이론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2.1 태도와 행동의 관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대부분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가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행동의도’라는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태도-행동의도-행동’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이후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개념으로,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전제로 두고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오래전부터 일부 연구자에 의해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Wicker (1969)의 연구에서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태도와 행동에 대한 31편의 연구를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태도와 행동은 부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메타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다. 분석단위가 개인이며,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태도 측정과 외적 행동의 측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외적 행동의 측정은 자기 보고적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Schuman and Johnson(1976)의 연구에서는 Wicker (1969)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반박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문제가 존재하며, 이후 연구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행동을 주로 자기보고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나, 태도와 행동은 완전히 분리되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존재한다. 박옥희(1991)의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포함하는 59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chuman and Johnson(1976)에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은 유

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와 행동 관계에서 일관성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태도와 행동 관계에 있어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또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조사와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2.2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 관계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도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그동안 진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들을 수집하여 통합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Belanger and Crossler, 2011; Lanier and Saini, 2008; Li, 2011, 2012; Smith et al., 2011), 이들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통해 프라이버시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들이 제시한 통합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동 반응에 있어 행동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합리적 행동이론의 ‘태도-행동의도-행동’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태도-행동의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행동의도-실제 행동’ 관계는 간과되고 있다(Li, 2012). 한편, Smith et al.(2011)은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은 실제 행동(Actual Behavior)이 아니라 기술된 의도(Stated Intention)로 측정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행동의도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행동반응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기술된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행동의도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일부 연구자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행동의도는 행동을 얼마나 기꺼이 하려는지 의지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동의도는

태도의 일부이며 실제 행동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는 달리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은 별개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Preibusch, 2013; Smith *et al.*, 2011).

프라이버시 행동에 대하여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종 행동반응을 행동의도로 설정한 연구와 실제 행동으로 설정한 연구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속변수를 프라이버시 행동의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 등 설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다. 한편, 실제 행동을 측정한 연구들도 다소 존재하는데, 설문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행동(Buchanan *et al.*, 2007; Jiang *et al.*, 2013; Youn, 2009)이나 SNS 프로필 공개 행동(Hughes-Roberts, 2013) 등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설문과는 별도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직접 개발(Keith *et al.*, 2013; Metzger, 2007)하거나 상황적 시나리오를 구성(Horne *et al.*, 2007; Hui *et al.*, 2007; Malheiros *et al.*, 2013; Norberg *et al.*, 2007)하여 실제 개인정보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2.3 프라이버시 역설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행동의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태도-행동의도-행동’에는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Ajzen, 1985; Fishbein and Ajzen, 1975).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을수록 개인정보를 제공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Buchanan *et al.*, 2007; Dinev and Hart, 2006; Malhotra *et al.*, 2004; Youn, 2009; Zhao *et al.*, 2012).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가 가정하는 바를 부정하는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초로 프라이버시 역설 개념을 사용한 연구는 명확하지 않으나, 프라이버시 역설 개념은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반직관적인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는 인식 및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Belanger and Crossler, 2011; Norberg *et al.*, 2007; Potzsch, 2009).

프라이버시 역설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태도와 프라이버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Staddon *et al.*, 2013; Utz and Kramer, 2009; Zefeiropoulou *et al.*, 2013)와 프라이버시 행동의도와 프라이버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Hughes-Roberts, 2013; Keith *et al.*, 2013; Norberg *et al.*, 2007)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태도-행동의도-행동’을 기준으로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불일치성을 검증하거나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도와 행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이 다소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가정하는 바와는 달리 프라이버시 역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것에 그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Kokolakis(2017)는 그동안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하여 다룬 연구들을 수집하여 통합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Dinev and Hart, 2006; Jiang *et al.*, 2013; Xu *et al.*, 2011)과

사회적 이론(Blank *et al.*, 2014; Lutz and Strathoff, 2014), 인지적 편 의 및 휴리스틱(Baek *et al.*, 2014; Brandimarte *et al.*, 2013; Cho *et al.*, 2010; Kehr *et al.*, 2013), 제한된 합리성/불완전한 정보(Acquisti and Grossklags, 2005), 정보비대칭(Baek, 2014; Buck *et al.*, 2014), 양자이론(Flender and Muller, 2012) 등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룬 연구를 수집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특정 연구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종합적 메타분석과 특정 주제 및 이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Wallace, 1992),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합적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 이므로 진행되어온 연구의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분야의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논문을 수집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논문들을 모두 수집하고자 하였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서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scholar.dkyobobook.co.kr>\), ‘RISS\(<http://www.riss.co.kr>\)’와 보다 많은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서 Google Scholar\(<https://scholar.google.co.kr>\) 검색엔진에서 ‘프라이버시 역설’,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privacy paradox’를 주제어\(Key-word\)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역설’은 총 943편,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는 총 410편, ‘privacy paradox’는 총 362편이 검색되었다. 이때, KyoboScholar에서는 사회과학, 경제경영 분야의 학술논문에 국한하여 검색하였고, RISS에서는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Google Scholar는 국내 문헌으로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한국어 웹만 검색하도록 조건을 지정하였다.](http://kiss.ks</p>
</div>
<div data-bbox=)

먼저, 검색된 논문에서 연구제목과 연구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프라이버시 역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연구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관련이 없는 연구는 제외시키고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만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역설’ 19편,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25편, ‘privacy paradox’ 47편이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시키는 2차적인 선별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동일한 주제어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검색된 논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시켰고,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제외시키고 학술지 게재논문만 포함시켜 통합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수집 및 선정과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수집 및 선정과정

주제어	과정	DBpia	KISS	Kyobo Scholar	RISS	Google Scholar	계	3차) 최종선정
프라이버시 역설	1차) 검색	7	5	111	11	809	943	19
	2차) 선별	2	2	2	2	11	19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1차) 검색	4	3	119	13	271	410	
	2차) 선별	4	2	1	3	15	25	
Privacy paradox	1차) 검색	14	12	119	27	190	362	
	2차) 선별	7	2	6	16	16	47	

IV. 연구 결과

4.1 연구시기

본 연구에서 수집한 국내 문헌들의 연구시기를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듯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연구는 2009년을 시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기 2009~2010년에 수행된 두 연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 역설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의 일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하여 언급하는 정도이다(이호근, 이상훈, 2009; 정원섭,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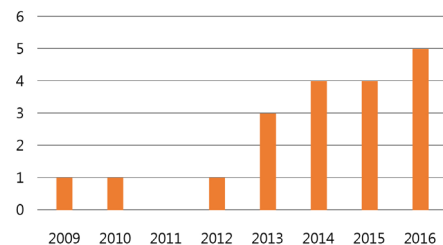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프라이버시 역설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단순히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와 확인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태도와 행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장원창, 신일순, 2012)가 진행되었다. 2012년에 수행된 연구는 프라이버시 역설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장원창, 신일순(2013)은 아이핀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아이핀에 대한 인지 및 실제 사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프라이버시 역설을 언급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두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행동에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해 설문조사와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종기, 김상희, 2013; 임명성, 2013). 이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가정하는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에 수행된 연구부터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되는 면모를 보인다. 프라이버시 역설이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비실증연구에서는 주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가(김선경, 2014; 오탈원, 2014), 실증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김종기, 김상희, 2014; 임명성, 신용재, 2014)가 이루어졌다.

2015년에 수행된 연구부터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였다. 2014년까지 수행된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김종기, 김상희, 2015).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도 생겨났는데, 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양면성이나 내/외적요인에 대한 연구(이원준 등, 2015; 이충훈 등, 2015)가 진행되어 프라이버시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SNS, 지급결제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프라이버시 역설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또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연중 등, 2016; 박향미, 유지연, 2016; 유재호 등, 2016; 허정 등, 2016).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양적인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수집된 논문의 발간연도

4.2 연구분야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역시 정보시스템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웹사이트나 SNS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나 모바일쇼핑, 최근에는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개인의 인식이나 행동에 대해 다루는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한계점은 실제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도가 측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오프라인에서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정 상황을 가상하여 피실험자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대해 실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법학 및 철학 분야에서도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수집된 논문의 연구분야

연구분야	논문수(비율)
웹사이트	5(26.3%)
SNS	4(21.0%)
오프라인(실험)	2(10.5%)
전자상거래	1(5.3%)
모바일쇼핑	1(5.3%)
빅데이터	1(5.3%)
아이핀이용	1(5.3%)
기타	4(21.0%)
계	19(100.0%)

4.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크게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되었듯이 실증연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실증연구에 비해 확연하게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는 비실증연구에 비해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비교적 성숙한 연구 분야에서는 비실증연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박서기, 황경태, 2016). 본 연구에서 수집된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시스템 분야에 속하며, 이는 비교적 성숙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수집된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수	세부방법	연구수	분석방법	연구수
실증	14	설문	12	차이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기타	2 1 8 1
		실험	2	회귀분석	2
비실증	5	개념적 모델 튜토리얼/ 리뷰	4 1		
계	19				

4.3.1 실증연구의 세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대상 중 실증연구의 세부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가 약 86%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자기보고적(Self-reported)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차이분석(장원창, 신일순, 2012, 2013)을 실시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회귀분석(이주영, 강현정, 2015) 및 구조방정식(김종기, 김상희, 2013, 2014; 유재호 등, 2016; 이원준 등, 2015; 이진명, 나종연, 2016; 이충훈 등, 2015; 임명성, 2013; 허정 등, 2016)을 이용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대부분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이 아니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역설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비교적 복잡한 모형이 도출되고 있어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변수선택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임명성, 신용재, 2014)도 존재한다.

반면에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은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험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개인정보제공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고 있으며, 상황적 조건에 따른 행동을 측정하기에 실험이라는 연구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는 비교적 분석방법이 단순해 지는데, 대체로 회귀분석(김연중 등, 2016; 김종기, 김상희, 2015)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3.2 비실증연구의 세부 연구방법

박서기, 황경태(2016)의 연구에 따르면, 비실증연구의 세부 연구방법은 크게 수리/공학적 모델, 개념적 모델, 튜토리얼/리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 중에서 비실증연구는 총 5편에 불과하며,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 3편과 다른 분야(법학, 철학)의 연구 2편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통합연구(이호근, 이상훈, 2009)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념적 모델(김선경, 2014; 박향미, 유지연, 2016; 오태원, 2014; 정원섭, 2010)에 해당된다. 프라이버시 역설을 주제로 다루지 않고 연구내용의 일부분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4.4 프라이버시 역설을 정의하는 관점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전개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TRA나 TPB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관점이다.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를 측정하기 위해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 염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프라이버시 관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를 행동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과관계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때, 기존 연구에서 태도-행동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설정한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총 19편 중 10편의 연구가 이 관점에 해당한다.

첫 번째 관점에서 행동은 설문을 통해 행동의도로 측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이 아니라, 설문을 통해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행동보다는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동의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국내 문헌에서는 2015년에 진행된 단 한 편의 연구만이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 번째 관점에 비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의 질적인 수준이 한층 향상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서 비롯된 관점이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긍정적인 요인인 개인화나 특

〈표 4〉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의 관점에 따른 분류

관점	연구 수	세부 연구내용
태도-행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지-행동(장원창, 신일순, 2012) • 프라이버시 염려-보호행동(김종기, 김상희, 2013) • 프라이버시 관심(염려)-무관심 행동(임명성, 2013) • 아이핀 인지-실제 이용(장원창, 신일순, 2013) • 프라이버시 염려-정보제공행동(김종기, 김상희, 2014) • 프라이버시 염려-지속사용의도(이주영, 강현정, 2015) • 내적/외적요인-부주의한 개인정보제공공개행동(이충훈 등, 2015) • 프라이버시 염려도-개인정보제공행위(김연중 등, 2016) • 인식-실제행동(박향미, 유지연, 2016) • 프라이버시 염려-지급결제서비스이용(허정 등, 2016)
의도-행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의도-실제 제공행동(김종기, 김상희, 2015)
개인화 및 프라이버시 계산 (Trade-off)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익이나 편리함-개인정보제공과 활용 동의(이호근, 이상훈, 2009) • 개인화서비스-프라이버시 염려(김선경, 2014) • 긍정적 피드백-사생활 노출 우려(이원준, 2015) •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공개적인 자기표현(유재호 등, 2016) • 개인화 혜택-프라이버시 위험(이진명, 나종연, 2016)
경험-행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사고-행동(유지지속가치)(임명성, 신용재, 2014)
기타 분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양면성: 자신 보장-남 공개(정원섭, 2010) •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법에 의해 가정된 가치 간의 충돌(오태원, 2014)

정 혜택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현상을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본다. 또한 두 요인이 공존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현상이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서 비롯된 세 번째 관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즉 계산을 통해 부정보다 긍정효과가 높을 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4.5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의 접근방법

4.5.1 실증연구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실증연구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구와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분석방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용

자의 태도와 행동 여부에 대한 단순한 자료를 수집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장원창, 신일순(2012)은 설문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지하는지와 실제로 확인하는지를 조사하여 Pearson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한 결과, 태도와 행동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역설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인 장원창, 신일순(2013)은 아이핀에 대한 인지와 실제 이용 정도를 조사하여 역시 Pearson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역설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며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역설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주장하는 태도-행동의 일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관점이다. 기존 프라이버시 행동 연구에서는 주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정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도 기존의 연구에서 설정하는 인과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다.

김종기, 김상희(2013)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중요성을 태도로 보고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검정을 수행한 결과,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프라이버시 역설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허정 등(2016)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 제공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설이 기각되어 프라이버시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토대로 프라이버시 역설을 정의하는 관점으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결과요인인 특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원준 등(2015)는 촉진요인인 긍정적 피드백과 저해요인인 사생활 노출 우려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진명, 나중연(2016)은 긍정적 반응(개인화 혜택)과 부정적 반응(프라이버시 위협)의 상충정도를 나타내는 양면가치태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유재호 등(2016)는 듀얼팩터이론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측면(공개적인 자기표현)과 부정적인 측면(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역설과 관련된 변수를 인과관계가 아니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수행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주영, 강현정(2015)은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명성(2013)은 프라이버시 역설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프라이버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위협과 지각된 유용성만이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요인들을 프라이버시 역설을 유발시키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후속연구로 임명성, 신용재(2014)는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려 웹사이트에 대한 유지지속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수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종기, 김상희(2014)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첫째, 정보제공에 따른 즉각적인 이익과 둘째, 제도적 신뢰에 의한 프라이버시 위협의 감소로 설정하고, 이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종기, 김상희(2015)는 정보제공의도와 실제 정보제공행동 간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중 프로세스 이론에 따라 의사결정 상황과 실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별적으로 존재함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즉,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합리적 사고에 의해 부정적인 신념인 위협이, 실제 상황에서는 직관적 사고에 의해 긍정적인 신념인 신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충훈 등(2015)은 동기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을 유발하는 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규

〈표 5〉 프라이버시 역설 실증연구의 접근방법

연구	연구자	이론 및 설명	접근방법
역설 존재	장원창, 신일순(2012)	인지(태도)-확인(행동)	차이검정
	김종기, 김상희(2013)	프라이버시 염려→보호행동	인과관계(AMOS)
	장원창, 신일순(2013)	아이핀 인지-행동	차이검정
	이원준 등(2015)	촉진/저해요인→신뢰	인과관계(AMOS)
	이주영, 강현정(2015)	염려와 지속사용의도 간에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적 역할	조절관계
	유재호 등(2016)	듀얼팩터이론: 부정/긍정 공존	인과관계(PLS)
	이진명, 나종연(2016)	긍정/부정요인(양면가치태도)→만족	인과관계(AMOS)
	허정 등(2016)	염려→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행동 (+)	인과관계(AMOS)
역설 원인	임명성(2013)	프라이버시 관심(염려)→무관심 행동	인과관계(PLS)
	김종기, 김상희(2014)	프라이버시 이익→정보제공행동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위험 간에 제도적 신뢰의 조절적 역할	인과관계 조절관계(PLS)
	임명성, 신용재(2014)	변수선정→유지지속가치	인공신경망
	김종기, 김상희(2015)	이중 프로세스 이론 정보제공의도-실제 행동 차이 위험→의도, 신뢰→행동	인과관계(회귀분석) 차이검정
	이충훈 등(2015)	동기이론: 내외적요인(유발요인)	인과관계(PLS)
	김연중 등(2016)	염려도와 제공행위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분석	조절관계

명하고자 부주의한 개인정보 제공과 공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내적요인보다는 외적요인이 프라이버시 역설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연중 등(2016)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제공행동 간의 조절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신뢰도를 제외하고 금전적 혜택, 개인화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교육여부, 개인의 성격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프라이버시 역설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5.2 비실증연구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비실증연구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다루는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언급한 연구와 프라이버시 역설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이호근, 이상훈(2009)과 정원섭(2010)은 국내 연구에서 최초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호근, 이상훈(2009)은 그동안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내용 중 일부분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강화는 사용자의 효익을 감소시키는 프라이버시 역설 문제이며, 이는 프라이버시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원섭(2010)은 프라이버시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기업은 성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책을 이용하여 고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선경(2014)은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효용이 높은 반면 높은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빅데이터에서 개인화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염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때 신뢰가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역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테원(2014)은 프라이버시 역설이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가정된 가치와 충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법과 사회적 규범 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역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박향미, 유지연(2016)은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측정 지수를 개발하였다. 프라이버시 리터러시는 무의식적, 직관적, 가치판단적, 역설적의 네 가지 상태가 존재하며, 리터러시를 명확히 파악하여 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태도와 행동 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프라이버시 역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어진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를 수집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19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 시기, 연구분야, 연구방법을 비롯하여 프라이버시 역설을 정의하는 관점과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통합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합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2009년을 시점으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정보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기존의 프라

이버시 연구가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 즉,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 역설을 정의하는 관점은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관점,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관점,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기반으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충관계로 작용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행동의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측정되는 행동은 대부분 행동의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때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태도와 가깝고 실제 행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행동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행동은 다른 구성개념과 함께 자기보고적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제 행동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태도와 행동의 측정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행동은 자기보고적 방법이 아니라 실험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reibusch, 2013; Schuman and Johnson, 1976; Wicker, 1969). 따라서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도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수행하던 설문조사 방법에서 벗어나 실험연구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통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이 진행된 연구는 불과 두 편에 불과하다(김연중 등, 2016; 김종기, 김상희, 2015). 국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실제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의 관심이 대두되면서 국내 연구에서도 실험을 통해 실제 행동을 측정하여 ‘태도-행동’ 간의 관계나 ‘행동의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가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나 분석도구가 시도되어 왔지만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질적 수준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역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를 부정하는 관점으로, 경제학적 합리성을 가정하는 전통경제학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전통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학파가 등장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행동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학에 심리학을 결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정하는 행동경제학에서는 제한된 정보/시간, 불확실성, 인지능력의 한계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인간의 의사결정은 완전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Acquisti, 2004).

본 연구에서도 프라이버시 역설의 원인을 설명

하고자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두 편 존재한다(김종기, 김상희, 2014, 2015). 현재를 중시하며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과도하게 가치를 폄하한다는 쌍곡형 할인(Hyperbolic Discounting)과 인간의 정보처리 프로세스가 합리적 프로세스와 직관적 프로세스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상이나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 인간은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현상유지 편향성(Status Quo Bias),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이 이에 따른 이득을 초과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포기한다는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마음 속에 설정된 계정에 따라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심적 회계 효과(Mental Accounting), 자신의 소유물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인 소유효과(Endowment Effect) 등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나 행동에 대해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전개하는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하여 반직관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는 행동경제학 관점과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면 향후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보다 심도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을 맥락(Context), 이론(Theory), 방법론(Methodology)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온라인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나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나 SNS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웹사이트나 전자상거래, SNS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가치가 각각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형이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상황하에 연구가 수행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된 이론을 보면, <표 4>의 프라이버시 역설을 정의하는 세 번째 관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토대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선경, 2014; 유재호 등, 2016; 이원준 등, 2015; 이진명, 나준연, 2016; 이호근, 이상훈, 2009).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기반하여 부정정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때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 외에도 프라이버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적용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은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전통경제학 관점에 기반하여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전제를 두고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역설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긍정/부정요인이 공존하다는 동기이론(이충훈 등, 2015), 외적/내적요인이 역설을 유발한다는 듀얼팩터이론(유재호 등, 2016)을 적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또한 김종기, 김상희(2015)는 이중 프로세스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이 의사결정 상황과 실제 상황이 차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연구가 초기 단계이므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실증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가 약 8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존 프라이버시 연구는 설문을 통해 태도와 행동의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아닌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실험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도나 행동의 측정에 있어 조사대상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가 혼용된다면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더욱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합연구와 Kokolakis(2017)의 통합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Kokolakis(2017)에 따르면, 국외 문헌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편이나 휴리스틱, 제한된 합리성, 불완전한 정보, 정보비대칭과 같은 행동경제학 관점의 연구가 국내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Kokolakis(2017)의 연구에서도 설문에 의한 자기 보고적 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Kokolakis(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험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국내 연구에 비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층적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그리고 개념적/분석적 접근법 등 새로운 접근법이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고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론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

를 지속하여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연구 분야에서는 그동안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토대로 대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태도와 행동의 양분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도 태도와 행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른 연구들을 수집하여 통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연구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이 한 주류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프라이버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통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후 프라이버시 연구자들이 행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라이버시 연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태도와 행동의 양분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부분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행동의도는 개인이 행동을 얼마나 기꺼이 하는지 의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태도의 일부이지 실제 행동을 측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제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연구자들에게 이에 관하여 재고하는 계기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

로 프라이버시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태도와 행동의 양분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낼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버시 행동 연구에서 수행되는 결과는 대부분 실제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정부나 개인정보보호기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제 프라이버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연구를 통해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한다면 정부나 개인정보보호 기관에서는 실제 프라이버시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범위는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수가 적으며 편의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범위를 국외문헌으로 확장하여 통합연구가 수행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통합연구의 분석방법은 정성적 통합분석과 정량적 통합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들은 연구의 주제나 방법이 다양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강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정량적 통합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는 정성적 통합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량적 통합연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김선경,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화서비스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고찰: 사회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4, pp. 193-207.
- [2] 김연중, 김진성, 안병혁,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Privacy Paradox”,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6권, 제1호, 2016, pp. 119-151.
- [3] 김종기, 김상희,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연구: 프라이버시 역설 관점에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3권, 제1호, 2013, pp. 41-64.
- [4] 김종기, 김상희,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제공 행동 간의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제3권, 제3호, 2014, pp. 139-152.
- [5] 김종기, 김상희,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2권, 제3호, 2015, pp. 16-35.
- [6] 박서기, 황경태, “빅데이터 보안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제23권, 제1호, 2016, pp. 3-19.
- [7] 박옥희,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5집, 1991, pp. 143-159.
- [8] 박향미, 유지연, “올바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제26권, 제2호, 2016, pp. 501-522.
- [9] 오테원, “Regulating against the privacy paradox”, *As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제6권, 제1호, 2014, pp. 27-37.
- [10] 유재호, 이애리, 김경규, “페이스북에서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 연구: 듀얼팩터이론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2016, pp. 17-47.
- [11] 이원준, 한희정, 정남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신뢰전이와 삶의 만족에 대한 이해: 정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해소 관점”,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8호, 2015, pp. 2091-2106.
- [12] 이주영, 강현정,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도의 매개 및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효과”, *지식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2015, pp. 47-67.
- [13] 이진명, 나중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양면 가치태도와 내적갈등이 소비자의 모바일쇼핑 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2016, pp. 147-170.
- [14] 이충훈, 맹윤호, 이중정,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영향 요인 연구: SNS를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제14권, 제2호, 2015, pp. 99-112.
- [15] 이호근, 이상훈,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온라인 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2009, pp. 3-26.
- [16] 임명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웹사이트 가입 지속 및 프라이버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013, pp. 107-119.
- [17] 임명성, 신용재,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후 인터넷 사용자의 가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4, pp. 251-283.
- [18] 장원창, 신일순, “아이핀(i-PIN)의 가치창출효과 추정”,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3, pp. 185-193.
- [19] 장원창, 신일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인지 및 확인과 온라인 거래 행동”,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2012, pp. 1419-1427.

- [20] 정원섭, “프라이버시와 공공선”, *철학과 현실*, 2010, pp. 179-189.
- [21] 허정, 김승현, 차남준, 황준석,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이용자 태도 및 행동 연구: 지급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7권, 제3호, 2016, pp. 75-97.
- [22] Acquisti, A. and J. Grossklags, “Privacy and rationality in individual decision making”, *IEEE Security & Privacy*, Vol.3, No.1, 2005, pp. 26-33.
- [23] Acquisti, A., “Privacy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economics of immediate gratification”, *Proceedings of the 5th ACM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2004, pp. 21-29.
- [24] Ajzen, I.,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Springer: Heidelberg, 1985.
- [25] Baek, Y. M., “Solving the privacy paradox: A counter-argument experimental approach”,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38, 2014, pp. 33-42.
- [26] Baek, Y. M., E. M. Kim, and Y. Bae, “My Privacy is okay, but theirs is endangered: Why comparative optimism matters in online privacy concer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31, 2014, pp. 48-56.
- [27] Belanger, F. and R. E. Crossler, “Privacy in the digital age: A review of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Vol.35, No.4, 2011, pp. 1017-1041.
- [28] Blank, G., G. Bolsover, and E. Dubois, *A New Privacy Paradox*, Working paper, University of Oxford, Global Cyber Security Capacity Centre, 2014.
- [29] Brandimarte, L., A. Acquisti, and G. Loewenstein, “Misplaced confidences privacy and the control paradox,”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4, No.3, 2013, pp. 340-347.
- [30] Buchanan, T., C. Paine, A. N. Joinson, and U. Reips, “Development of measures of online privacy concern and protection for use on the interne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58, No.2, 2007, pp. 157-165.
- [31] Buck, C., C. Horbel, C. C. Germelmann, and T. Eymann, “The unconscious app consumer: Discovering and comparing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among mobile application consumers”, *Proceedings of the 2014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14.
- [32] Cho, H., J. S. Lee, and S. Chung, “Optimistic bias about online privacy risks: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rior experi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No.5, 2010, pp. 987-995.
- [33] Dinev, T. and P. Hart,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7, No.1, 2006, pp. 61-80.
- [34] Fishbein, M.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1975.
- [35] Flender, C. and G. Muller, “Type Indeterminacy in privacy decisions: The privacy paradox revisited”, in J. R. Busemeyer, F. Dubois, A. Lambert-Mogiliansky, and M. Melucci (eds.), *Quantum Interaction*, Springer, Heidelberg, 2012, pp. 148-159.
- [36] Home, D. R., P. A. Norberg, and A. C. Ekin, “Exploring consumer lying in information-based exchanges”,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24, No.2, 2007, pp. 90-99.
- [37] Hughes-Roberts, T., “Privacy and social networks: Is concern a valid indicator of intention and behavior”,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omputing*, 2013, pp. 909-912.
- [38] Hui, K., H. H. Teo, and S. T. Lee, “The value

- of privacy assurance: An exploratory field experiment”, *MIS Quarterly*, Vol.31, No.1, 2007, pp. 19-33.
- [39] Jiang, A., C. S. Heng, and B. C. F. Choi, “Privacy concerns and privacy-protective behavior in synchronous online social interac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4, No.3, 2013, pp. 579-595.
- [40] Kehr, F., D. Wentzel, and P. Mayer, “Rethinking the privacy calculus: On the role of dispositional factors and affect”,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13.
- [41] Keith, M. J., S. C. Thompson, J. Hale, P. B. Lowry, and C. Greer, “Information disclosure on mobile devices: Re-examining privacy calculus with actual user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71, 2013, pp. 1163-1173.
- [42] Kokolakis, S., “Privacy attitudes and privacy behaviour: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on the privacy paradox phenomenon”, *Computer & Security*, Vol.64, 2017, pp. 122-134.
- [43] Lanier, C. D. and A. Saini, “Understanding consumer privacy: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2, No.2, 2008, pp. 1-45.
- [44] Li, Y., “Empirical studies on online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Literature review and an integrative framework”,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28, 2011, pp. 453-496.
- [45] Li, Y., “Theories in online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A critical review and an integrated framework”, *Decision Supports Systems*, Vol.54, 2012, pp. 471-481.
- [46] Lutz, C. and P. Strathoff, “Privacy concerns and online behavior-not so paradoxical after all? Viewing the privacy paradox through different theoretical lenses”, *Working Paper*,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2014.
- [47] Malheiros, M., S. Preibusch, M. A. Sasse, “Fairly truth: The impact of perceived effort, fairness, relevance, and sensitivity on personal data disclosure”, *Proceedings of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ust & Trustworthy Computing*, 2013.
- [48] Malhotra, N. K., S. S. Kim, and J. Agarwal,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5, No.4, 2004, pp. 336-355.
- [49] Metzger, M. J.,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in electronic commer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2, 2007, pp. 335-361.
- [50] Norberg, P. A., D. R. Horne, and D. A. Horne, “The privacy paradox: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tentions versus behavior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41, No.1, 2007, pp. 100-126.
- [51] Potsch, S., “Privacy awareness: A means to solve the privacy paradox?”, *Proceedings of IFIP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2009, pp. 226-236.
- [52] Preibusch, S., “Guide to measuring privacy concern: Review of survey and observational instru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71, 2013, pp. 1133-1143.
- [53] Schuman, H. and Johnson, M. 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 1976, pp. 161-207.
- [54] Smith, H. J., T. Dinev, and H. Xu,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review”, *MIS Quarterly*, Vol.35, No.4, 2011, pp. 989-1015.
- [55] Staddon, J., A. Acquisti, and K. LeFevre, “Self-re-

- ported social network behavior: Accuracy predictors and implications for the privacy paradox”,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omputing*, 2013, pp. 295-302.
- [56] Utz, S. and N. C. Kramer, “The privacy paradox on social network sites revisited: The rol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roup norms”,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Vol.3, No.2, 2009, pp. 1-10.
- [57] Wallace, W. I.,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Ritzer, G.(ed.), *Metatheorizing*, Sage: New York, 1992, pp. 53-68.
- [58] Wicker, A. W., “Attitudes versu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5, 1969, pp. 41-78.
- [59] Xu, H., X. R. Luo, J. M. Carroll, and M. B. Rosson, “The personalization privacy paradox: An exploratory study of decision making process for location-aware marketing”, *Decision Support Systems*, Vol.51, No.1, 2011, pp. 42-52.
- [60] Youn, S., “Determinants of online privacy concern and its influence on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43, No.3, 2009, pp. 389-418.
- [61] Zefeirpoulou, A. M., D. E. Millard, C. Webber, and K. O’Hara, “Unpicking the privacy paradox: Can structuration theory help to explain location-based privacy decisions?”, *Proceedings of the 5th Annual ACM Web Science Conference*, 2013, pp. 463-472.
- [62] Zhao, L., Y. Lu, and S. Gupta, “Disclosure intention of location-related information in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16, No.4, 2012, pp. 53-89.

Privacy Paradox: A Literature Review and Future Direction

Sanghee Kim* · Jongki Kim**

Abstract

The growing interest in the privacy paradox involving discussions about discrepa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topic. An in-depth theoretical review of the privacy paradox is essential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of domestic research in the privacy paradox. In this study,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f existing domestic studies in the privacy paradox.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research showed marked improvement. Earlier studies primarily focused on the existence of the privacy paradox phenomenon, but existing studies on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gradually increased. Despite the use of various methodologies and analytical tool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privacy paradox, research in privacy paradox remains in its infancy.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achieve qualitative growth, and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ntroduce the behavioral economic approach. This approach posits that bounded rationality could contribute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ivacy paradox and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privacy field.

Keywords: *Privacy Paradox, Privacy Attitude, Privacy Behavior, Behavioral Economics, Meta-Analysis*

* Research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저 자 소 개 ◎



김 상 희 (ksh@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프라이버시, 정보보안, 행동경제학 등이다.



김 종 기 (jkkim1@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마쳤으며, 미국 Ar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Mississippi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정보보안관리,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기술경영, 행동경제학 등이다.

논문접수일 : 2017년 08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1월 11일

3차 수정일 : 2018년 03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3월 27일

2차 수정일 : 2018년 03월 19일